

SK에너지, 포스코와 석탄화학 협력

공동사업 타당성 검토 MOU 체결 ... 부산물 고부가화에 공동 노력키로

SK에너지는 10월25일 포스코와 석탄화학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SK에너지 구자영 사장과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석탄화학 공동사업 타당성 검토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철강과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기초 석유화학제품과 고부가 화학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의 경제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이 융합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세우고 대규모 석탄화학 사업의 기반을 확보하면 관련사업의 외국 진출과 다각화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0/10/25>